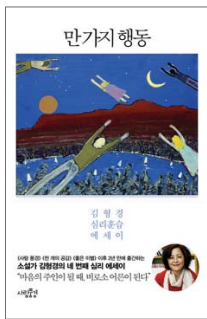


‘훈습’ 통한 내면의 치유 그리고 성장

〈훈련하며 몸에 배게 하는 것〉



‘만가지 행동’ 김형경 지음

몇년 전 출간된 소설가 김형경의 심리 에세이 '사람 풍경'을 처음 읽었을 때 든 생각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구나"하는 점이었다.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아닌척 감춰둔 생각들. 시기심, 미움, 혼돈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 흔들리는 게 내 모습만은 아니구나 하는 기분은 많은 위로가 됐다.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 풍경'에 쉽게 동화됐던 이유 중 하나는 저자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내보이며 진솔한 글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의 틀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준 이야기들은 '여행심리 에세이'라는 부제처럼 세상 이곳 저곳으로 여행하며 겪은 일들과 어우러지며 '재미있게' 읽히고,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의 작가 김형경에게 위로 받은 이들이 많아서 인지 그는 이후 두권의 심리 에세이를 더 펴냈다.

이번에 나온 '만가지 행동'에는 '김형경 심리 훈습 에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훈습'이라는 개념은 '심리 치료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일상과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려 끊임 없이 노력하는 과정. 쉽게 말하면 '훈련하며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저자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저자가 처음 정신분석을 받았던 1997년 즈음은 책에 쓰인 것처럼 '사람

들은 네가 진짜 미친줄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정신분석 받았다는 말을 하지마'라는 주의를 들을 때다. 저자는 정신분석을 받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섭렵하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갖게 됐고 이번 책에서도 그 경험들을 나누고 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스 등 전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들과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 등 다양한 책들에서 얻은 지혜는 덩이다.

책은 모두 네 장으로 구성돼 있다. '하던 일 하지 않기'는 제목 그대로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버릇처럼 해왔던 일들을 버리는 것이다. 그녀가 대학 동창에게 느꼈던 '시기심', 오래된 모피코트를 통해 발견한 '자동 감박 반복추구'의 모습 등이 사례로 등장한다.

두번째 장 '하지 않던 일 하기'는 그동안 회피해 온 마음과 행동의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 새로운 지평을 탐색해 가는 과정이다. '무슨 일든 하기'라는 개념을 정착하고 새로운 생존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저자는 이스탄불 여행에서 관계맺기의 새로운 틀을 경험하고, 카이로 공항에서 택시기사와의 실랑이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머물러 보는 시도도 한다.

셋째 장 '경험 나누기'는 후배 여성들과 함께 꾸러 간 독서모임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자신의 소설에 공감하는 이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 '달팽이의 집'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꾸렸고 책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책을 읽다보면 그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마지막 장 '정신분석을 넘어서'는 동서양 종교에 담긴 지혜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을 담

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 풍경'을 먼저 읽고 이 책 '만가지 행동'을 읽는 게 어떨까 싶다. 저자의 또 다른 심리 에세이인 '천개의 공감'과 '좋은 이별'은 순서에 관계 없이 읽어도 무방할 듯하다.

〈사람풍경·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저자 김형경씨.

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 풍경'을 먼저 읽고 이 책 '만가지 행동'을 읽는 게 어떨까 싶다. 저자의 또 다른 심리 에세이인 '천개의 공감'과 '좋은 이별'은 순서에 관계 없이 읽어도 무방할 듯하다.

〈사람풍경·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높이 맞춘 규장각 고전, 역사를 만나다

‘양화소록’ ‘한국통사’

강희안·박은식 지음



어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책에는 국화·매화·난초를 비롯해 석류꽃·치자꽃·일본철쭉 등 16

‘경국대전’, ‘악학궤범’, ‘목민심서’ 등 낯익은 제목의 조선 고전을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 책이 출간된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우재단과 공동으로 매년 10권씩 5년에 걸쳐 발간하는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총서’ 시리즈로, 우선 1차분인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1474년)’과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1915년)’가 먼저 나왔다.

고전을 모본으로 삼아 번역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번역하는 한편, 다양한 문헌을 동원해 주제를 확충·보완하고 고전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변천 등을 덧붙여 일반 독자 눈높이에 맞춰 간행한 게 특징이다. ‘양화소록’은 조선 세조 때 문신 강희안이 지은 책으로 우리 역사에서 화훼와 본재를 다룬 저술 중 가장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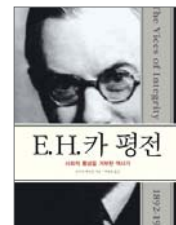
종의 식물에 괴석을 붙여 17종의 정원을 꾸미는 법이 담겨 있고 꽃을 빨리 피게 하는 법과 꽃이 싫어하는 것이나 화분을 배려는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한국통사’의 경우 1910년 광복의 시기에 좌절했던 우리 선조들이 동시대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양화소록’은 이종목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한국통사’는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번역해 쉽게 풀어냈다.

〈이카넷·양화소록 2만5000원 한국통사 2만1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언론인·정치학자·역사가... E.H.카 인생 역정

‘E. H. 카 평전’

조너선 해슬럼 지음



는 역사가로서의 엄격함을 지켜 내기 위해 직접 또는 서면으로 들은 이야기라 할 지라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배제했다.

풍부한 자료 때문인지 책장을 넘기다보면 외교관·언론인·정치학자·역사가로 역동적인 삶을 살다간 일생 뿐만 아니라 그가 살던 20세기, 특히 베르사유 조약, 러시아혁명, 제 2차 세계대전, 냉전과 데탕트에 이르는 국제 정치의 큰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또 냉전이라는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매달리며 불후의 역작인 '소비에테 러시아사' 14권을 완성해 가는 열정과 학자로서의 집념 등을 엿볼 수 있다.

〈삼천리·3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의 인생 역정을 파헤친 E. H. 카 평전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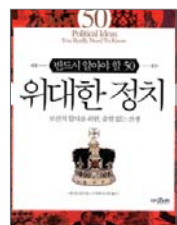
대학 새내기들의 필독서로 알려진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카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인 조너선 해슬럼 교수는 책을 완성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고 담아낸 한 인물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카의 저작과 논문 뿐 아니라 언론에 발표된 엄청난 양의 논설과 평론, 비망록과 육필 기록을 포함하고 사적 편지, 동료들의 회고,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자료는 평전을 돋보이게 하는 재산이다. 저자

세상을 만들어낸 50가지 정치개념들

‘위대한 정치’

벤 뒤프레 지음



50'도 최근 경향을 따르고 있다. 벤 뒤프레가 피상적 정치적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점, 유명한 정치사상가들의 명언을 인용한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사적인 정치의 의미를 넘어 정치의 핵심 개념이라는 자유·평등·정의·인권·민주주의·혁명부터 현대사회 최대 관심사인 세계화와 국제 분쟁까지 50가지 위대한 정치 사상을 담았다. 〈지식갤러리·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뜨거운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다. 그토록 혐오하고 불신하며 무관심하던 대중들도 정치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싱거운 게임으로 인식되던 대선은 한층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총선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딱딱하고 관에 박은 책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정치 관련 서적들이 많아진 게 한몫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위대한 정치·반드시 알아야 할

지금까지의 삶에 결별을 고하다

‘빌라 아말리아’

파스칼 키냐르 지음



퐁쿠르상,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대상 등을 수상한 '은밀한 생'의 작가 파스칼 키냐르가 새 소설 '빌라 아말리아'를 펴냈다.

주인공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마흔일곱살의 안.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친구 토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녀는 토미를 포함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선택보다는 사회적 관습에 얽매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에 결별을 고하기로 한 그녀는 직장에 사표

를 내고, 은행계좌를 닫고,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없애고, 옷과 사전을 불태우는 등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나간다.

한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 건 그녀는 파리, 독일, 스위스를 거쳐 나폴리만 이스키아섬의 푸른 지중해를 굽어보는 빌라 아말리아에서 다른 삶을 시작한다. 지난 2008년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동명 영화로도 제작됐다. 〈문학과 지성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를 내고, 은행계좌를 닫고,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없애고, 옷과 사전을 불태우는 등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나간다.

한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 건 그녀는 파리, 독일, 스위스를 거쳐 나폴리만 이스키아섬의 푸른 지중해를 굽어보는 빌라 아말리아에서 다른 삶을 시작한다. 지난 2008년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동명 영화로도 제작됐다.

〈문학과 지성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부든 악기든 알아서 척척, 기적의 아이들

‘기적의 유치원’

조혜경 지음



요즘 취학 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마음이 바쁘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미리미리'해야 한다는 선배 엄마들의 충고가 예상불예를 들리지 않아서다. 유치원에 보내야 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맘도 비슷하다.

'영어유치원을 보내야겠지?'는 고민도 아니다. 외국 어교사를 많이 채용한 영어 유치원은 어디인지, 취학 전 초등학교 논술과 수학 학원부터 음악·체육·한자 등은 어디가 나은 지 이곳저곳 귀동냥해 정보 구하고 시간표 짜느라 하루가 바빠할 정도다.

부모가 때때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해내고 악기 하나쯤은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닌 만큼 알아서 준비해줘야 한다는 게 엄마들 생

각이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내 아이만 안 시킬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기적의 유치원'은 이러한 부모들에게 유아교육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EBS 프로듀서인 저자 조혜경이 직접 취재했던 일본의 여러 유치원을 사례로 들며 '극성과 밤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매일 천천히 즐겁게 달리는 유치원 아이들이 42.195km를 뛰고 2500권의 책을 스스로 독파하는 다섯살짜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내 아이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엄마들, 많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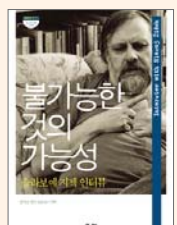
〈샘앤커스·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슬픔의 위안=슬퍼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슬픔이 익숙한 감정이 됐음에도 슬픔을 다루는데는 어색하고 서툴다. 저자론 마라스코와 브라이언 셔프는 슬픔이라는 주제를 담담하게 대면하도록 다양한 양상을 섬세하고 구체적 경험과 언어로 사색한다. 슬픔에 젖어 침묵하고 혼자만의 섬에 틀어박히는 누군가가 없도록 찬찬한 대화와 관찰, 깊고 풍부한 문학예술 작품과 철학 이야기를 통해 슬픔을 아무만지는 에세이이다. 〈현암사·1만3000원〉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라캉과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독특한 철학으로 '동유럽의 기적'으로 불리는 '스타 사상가' 슬라보예 지젝의 인터뷰집. 그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하다. 인디고 연구소 청년 연구원들이 기획한 '공동선 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로,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공리·1만8000원〉

▲시진핑 13억 중국인의 리더. 그는 누구인가=2013년 3월에 국가 주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시진핑은 누구인가. 중국 베이징 특파원으로 9년 동안 근무한 저자가 우리 시각으로 쓴 시진핑 평전. 5장으로 나누어 시진핑을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중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국내 정치·사회·경제 전망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급력 등을 짚어냈다. 〈글로연·1만5000원〉
▲대처 스타일='누구나 사랑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존경했던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거릿 대처의 리더십 등을 집중 해부한 책. 런던 집합상의 둘째딸로 태어난 대처가 이룬 정치적 성공과 인간적인 모습을 비롯해 적절로 가득 찬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 세상을 뒤엎은 수상이 되기까지 과정을 그리면서 그의 정치와 생애를 통해 기억할만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김영사·1만4000원〉

▲포스트 잡스=스티브 잡스가 사망(2011년 10월 5일)한 뒤 일부에서는 잡스의 존재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잡스가 남긴 유산의 의미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책은 그 내용을 묶은 것으로, 일반적인 잡필 형식을 벗어나 토론과 발표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현장감을 높였다. 〈지식공간·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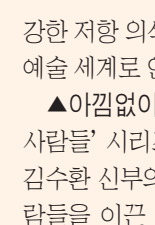
▲스무살 영화(觀)=문학평론가 겸 영화평론가인 강유정이 청소년들을 위해 쓴 영화 눈술 지침서로, 정보화·복합·도시화·소수자·환경 등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스무 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편의 동서양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아장구 감독의 '스틸 라이프',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송해성 감독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그로 인한 빈부격차를 생각해보자. 〈문학과지성사·1만1000원〉



▲뽀스락 왕자=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 '뽀스락 왕자'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동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괴실 앞으로 나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아무런 혼나도 거스리지 않고 학교생활을 즐기는 아이 뽀스락 왕자 이야기다. 어른들의 눈에는 버릇없고 산만해 보이는 뽀스락 왕자지만 누구보다도 어린이다운 '진짜 어린이'로 그려지고 있다. 〈별출·9800원〉

▲나도 최고가 되고 싶어요=누구나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최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달리기와 노래 등을 잘하는 바이올렛을 두고 반 아이들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런데 로지도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보내는 건강한 메시지. 〈책과콩나무·1만1000원〉

▲숫자 1의 모험=어려운 수학 개념을 유쾌한 동화 형식으로 풀어낸 수학 저자, 안나 체라솔리가 풀어낸 책. 수 세기를 시작하는 4~6세 유아에게 맞춤형 수학 동화로, 우리 주변에서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숫자 1'의 모험을 통해 가르쳐준다. 〈봄나루편집부·1만1000원〉
▲피카소, 게르니카를 그리다=화가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리게 된 배경과 제작 과정을 풍부한 사진 및 그림 자료를 곁들여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쉽고 명료하게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당시 피카소가 아만족 폭력 앞에서 예술가로서 느꼈던

강한 저항 의식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진정한 예술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특·1만4500원〉
▲아낌없이 나는 사랑 김수환='맑고 깊은 사람들' 시리즈 8번째로, 국내 첫 추기경이던 김수환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책. 사람으로 사 람들을 이끈 지도자 김수환 추기경의 과감한 장한 삶을 풀어내고 있다.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한국 카톨릭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 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종교인의 양심으로 바른길을 제시해온 김 추기경의 일생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확고한 꿈과 목표를 제시한다. 〈문인당어린이·9800원〉

어린이 책꽂이